

北韓의 文學・藝術

金 永 圭(統一院 研究官)

統 一 研 修 院

차 례

1. 概 觀	3
2. 文學·藝術政策	5
3. 組織 및 活動	15
4. 分野別 文學·藝術 實態	22
가. 文 藝	22
나. 音樂 및 歌劇	33
다. 舞 踊	45
라. 美 術	48
마. 映畫 및 演劇	56
※ 參考資料	64
1. 주요 공연단체 및 시설현황	
2. 기관·단체별 인물현황	
3. 조선화 畫論	
4.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목차	

1. 概 觀

北韓은 文學·藝術의 속성이 사람의 심성을 자극, 마음을 순화시키고 의식화 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 인식하고 일찍부터 文學·藝術을 통한 政治思想 教養에 이용해 왔다.

따라서 北韓의 文學·藝術은 純粹文學·純粹藝術이라는 본래의 영역을 벗어나 目的藝術·宣傳藝術 혹은 革命藝術이니 鬭爭藝術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하겠다.

北韓의 文學·藝術이 이렇게 전락될 수 밖에 없었던 原因은 그들이 해방후 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社會主義體制의 特性을 최대한으로 이용했기 때문인데, 體制의 特性이란 職業選擇, 居住移轉의 自由가 박탈되고 생존과 생활의 모든 영역이 당국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文學·藝術家들은 자신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當局의 必要와 政策目標에 따라 선발되고 길들여지는 것이므로 우리의 일반적 개념하에서 볼 때 藝術家가 아닌

한사람의 專門 機能人이라 할 수 있다.

當局에 의해 의도적으로 길러진 北韓의 소위 文學·藝術人들은 創作活動에 있어서도 獨創的인 活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자신이 지닌 기능만을 발휘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北韓의 藝術活動은 마땅히 當局의 政策的 意圖에서 着想되는 金日成·金正日의 偶像화 작업과 體制의 正當性, 노력동원의 필요성, 對南·對美 적개심 고취 등 제한된 소재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고 사람의 정서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소재로 하는 純粹藝術 領域은 외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北韓에서 발표되는 모든 영역의 藝術作品들은 作家나 藝術家의 創作品이 아니라 他意에 의해 受動的으로 만들어진 作品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연주하고 공연하는 사람들도 정해진 틀속에서 機能만을 발휘할 따름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런 처지에 있는 북한의 文學·藝術家들이지만 그들은 藝術家로서의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있고 當局도 이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

를 해주고 있어 北韓에서는 藝術家가 되는 것이 최대의 희망으로 되어 있다.

北韓當局이 藝術家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이유는 이들의 역할이 政治目的達成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데 있고 예술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파격적인 대우로 社會的인地位가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北韓의 藝術家를 상대로 南北交流와 協力을 해야 한다.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의식화된 이들을 상대로 순수한 예술을 논할 수 있겠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文學·藝術政策

祖國이 分斷된지 45년이 지났다. 이 기간동안 南北韓間에는 여러 분야에서 극심한 異質化 현상을 빚고 있는데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은 文學·藝術分野에서도 우리의 既存觀念으로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北韓의 文學·藝術은 金日成·金正日의 意識과 그들이 내세우는 主體思想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먼저 文學과 藝術에 관한 金日成·金正日의 관심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해 金日成·金正日是 세계 그 어느 통치자보다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金日成과 金正日이 文學·藝術에 대한 타고난 재질이 있고 이 부문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金日成은 그의 말대로라면 어릴때부터 빨치산 생활을 해 왔는데 빨치산 생활을 하면서 文學·藝術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기를 수는 없었을 것이고 金正日도 그의 성장과정을 통해서나 교육과정을 통해 볼 때 특별히 이 부문에 소양을 쌓거나 관심을 보일만한 계기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부문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은 文學과 藝術을 이해하고 좋아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이것을 政策的으로 이용하겠다는 측면에서 좋아하는 척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이유는 文學·藝術이 지니는 본질이 사람의 감정을 충동시키고 심성을 자극하여 정서를 보다 높은 미적 경지로 끌어 올리는 데 있다는 점을 일찍이 간파, 이를 자신의 政權維持에 利用하겠다는 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사실 金日成이 45년이나 되도록 1人獨裁體制를 유지해 오면서도 외형적으로나마 안정된 政治基盤을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은 金日成을 神格化시킨 偶像化 정책의 소산이라 할 수 있고, 偶像化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文學과 藝術을 적절히 이용했다는 데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文藝政策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體制옹호 및 合理化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文學·藝術을 이용한다는 데 두고 있고 藝術創作活動의 구체적 목표로서는 ①黨政策 具現 및 宣傳, 讚揚 ② 金日成 및 그 家系 偶像化 ③ 共產主義의 人間改造 ④ 政治思想 教養 ⑤ 勞力動員 및 勞動意慾 鼓吹 등 5개 부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北韓 文藝政策의 基調는 1962년 11월

김일성이 「작가·예술인들에게」라는 교시를 통해 밝힌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이익과 당의 호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자본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두철미 의거하는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근로대중을 공산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강력한 무기로 될 수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 敎示內容을 요약하면 순수예술이 지향하는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는 애정이나 감정등 정서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資本階級の 취미와 비위에 맞는 것이므로 北韓의 文學·藝術은 이를 배격해야 하고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비타협적이고 투쟁적인 면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文學·藝術을 「目的藝術」이니 「宣傳藝術」이니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내용이 혁명과 투쟁을 주축으로 하고 있어 「革命藝術」이니 「鬭爭藝術」이니 하는 것으로도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北韓에서 文學·藝術作品의 소재선정이나 표현의 기본요소는 레닌-스탈린으로부터 출전된 社會主義

的 寫實主義(Realism)에 근원을 두고 있다.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란 1932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그후 1934년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는 바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34년 제 1 차 작가동맹대회에서 「주다노프」당서 기장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대해 “혁명적 발전의 입장에서 생활을 묘사하고 사회주의적 기초위에 당과 노동계급의 모든 생활과 투쟁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했고 「스탈린」은 “인간혼의 技師로서 인민에게 봉사하고 레닌-스탈린 당사업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1959년 소련공산당 제21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공산주의적 도덕성을 강조하고 공산당에 대한 정열적 헌신성을 제공하며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적에 대한 비타협성의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북한의 김창만은 “사물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 것이 창조되고 낡은 것이 소멸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 또는 인민의 노력적 투쟁과 합류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상 주요인물의 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社

會主義的 寫實主義는 革命的이고 鬪爭的이며 非妥協的인 創造活動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서 작품 소재는 現實性, 革命性, 社會主義的 內容, 生産의 본질과 英雄的 人物을 묘사하는 것에 두고 있고 작품구성은 革命的 樂觀主義와 集團的 英雄主義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작품의 테마전개는 긍정적 상황과 구체적 사실을 묘사하고 작품의 주인공은 노동자, 농민, 사무원, 기사, 교원, 인민군 등을 형상화하는 사상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의 根本要素는 원래 ①黨性 ②階級性 ③人民性 등 3個要素로 구성되어 있으나 북한은 여기에다 非妥協性을 추가하여 4個要素로 구성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黨性이란 당의 노선과 정책에 입각하여 작품의 소재를 선택하며 사회발전과 생활의 본질을 당정책과 연관하여 묘사하고 반영한다는 것이고, 階級性이란 노동계급의 영웅적 투쟁을 주된 소재로 삼아

야 한다는 것이며, 人民性은 인민을 형상화하고 인민에게 쉽게 이해되고 인민의 이익과 요구에 순응해서 인민대중의 것으로 발전시켜, 인민을 혁명과 건설에 끌기토록 한다는 것이다.

北韓에서 추가하고 있는 非妥協性 原則이란 이상 열거한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의 기본 3원칙 이외의 여하한 것이라도 배격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키 위해 추가시킨 것이다.

북한의 文學·藝術을 총괄하는 「문학·예술총동맹」은 그들의 活動目標를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① 문예작품 창작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철저히 입각해야 한다. ② 문예활동에 있어 「당성·계급성·인민성」을 고도로 발양해야 한다. ③ 당의 노선과 정책에 엄격히 의거하여 그의 관철을 위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社會分野가 철저하게 統制되고 計劃化되어 있는 北韓에서 文學·藝術人들이 자신의 개성이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창작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겠지만 이상과 같은 작품의 소재

선정으로 부터 표현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북한의 文學·藝術人들
은 주관과 개성이 상실된 허물만의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70년대 이후 北韓의 文藝政策은 약간 보완되었는
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두가지의 새로운 이론을
적용토록 한 것과 다른 하나는 藝術의 大衆化에 두
고 있다는 사실이다.

北韓이 말하는 두가지 新理論의 하나는 「문학·
예술에서의 종자론」인데 “종자”란 한마디로 표현하
면 文學·藝術作品에서 주제 및 소재를 결정하는
중심사상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상”은
金日成革命思想, 主體思想, 당의 정책과 노선, 金
日成에 대한 忠誠心을 말하는 것이다.

北韓의 文學·藝術辭典에 수록된 「종자론」의 설
명을 보면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창작, 실
천하는 과정에서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진
문예이론의 새로운 개념”, “종자란 작품의 기본 핵
이다.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그 작품의 가치
를 규정하는 데서 근본문제로 되며 창작가는 종자

를 똑바로 잡아야 자기의 사상 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에는 반드시 창작가가 개성적으로, 독창적으로 발견하고 심어 놓은 자기의 종자가 있어야 하며 거기서 아름다운 형상의 꽃이 만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北韓은 종전의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이 종자론을 추가한 것이 「文學·藝術의 基本原則」이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김일성주의의 실천적 미학”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新理論 중 두번째 것은 「주체문예이론」이라는 것인데 主體思想에 기초하여 정립한 문예이론으로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文學·藝術에서 보다 폭넓게, 깊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문예이론」에 대한 北韓側의 설명을 보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인민의 이익과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는 표현방법, 즉 人民的이며 革命的인 表現方法을 적용하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新理論에 따라 실천되고 있는 것이 김

일성과 그 가계에 대한 이상화, 신격화 작품 생산인데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김일성은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의 능력으로서 는 형상화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集體的으로 창작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金日成을 형상화 하기 위해 구성된 創作團으로서 는 詩, 小說을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4·15 창작단」이 있고 가극, 시나리오를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백두산 창작단」이 있는 데다 金日成 形象化作品을 전용 공연하기 위해 「피바다 가극단」, 「만수대 예술단」이 결성되었으며 「수령형상 문학」이라는 하나의 특이한 장르까지 등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北韓에서 말하는 「예술의 대중화」에 대해 개략적으로 언급한다면 “예술발전은 대중의 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勤勞人民大衆을 藝術人의 수준으로 배양, 육성키 위해 文學·藝術 수준을 일반화 한다는 것이다.

北韓의 이러한 방침은 社會主義憲法에도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 제45조에 의하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68조에는 “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예술의 대중화」방침에 따라 北韓에서는 「군중예술」이니 「집체예술」이니 하는 형태의 매머드 마스게임, 군중집회식 행사 등이 등장했고, 각급 協同農場, 工場, 企業所 단위에 「예술소조」, 「예술선전대」가 조직되어 노동자들의 작업 휴식시간을 틈타 노력선동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組織 및 活動

北韓에서의 文學·藝術關係 組織의 최고 상층기관은 勞動黨 中央委員會 宣傳煽動部이고, 黨內 文化藝術部는 선전선동부를 지원하는 실무부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불과하다 하겠다.

즉, 宣傳煽動部에서는 文學·藝術作品의 主題選定, 創作方向 및 양등 政策的 基本事項을 결정하고 文化藝術部에서는 藝術人 管理, 創作技法 및 理論適用 등 專門的인 사항과 行政的 支援業務 등을 담당하며 政務院 산하에 있는 文化藝術部는 豫算 및

行政實務를 수행할 뿐이다.

北韓에서 文化藝術部門을 총괄하는 기관이 勞動黨 宣傳煽動部라는 사실은 北韓의 藝術이 純粹藝術이기 이전에 당의 방침을 宣傳·煽動하는 「선전예술」, 「선동예술」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많은 학자, 전문가들은 北韓의 예술을 「선전예술」이니 「선동예술」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社會에서 소위 藝術人이라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政務院 文化藝術部 산하의 一個社會團體인 「朝鮮文學·藝術總同盟」(文藝總)에 가입해야만 되고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藝術人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朝鮮文學·藝術總同盟」에는 「作家同盟」, 「音樂家同盟」, 「美術家同盟」, 「舞踊家同盟」, 「演劇人同盟」, 「映畫人同盟」, 「寫眞家同盟」등 7개 산하단체가 있고 이들 산하단체 밑에 각 직능별 분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各道級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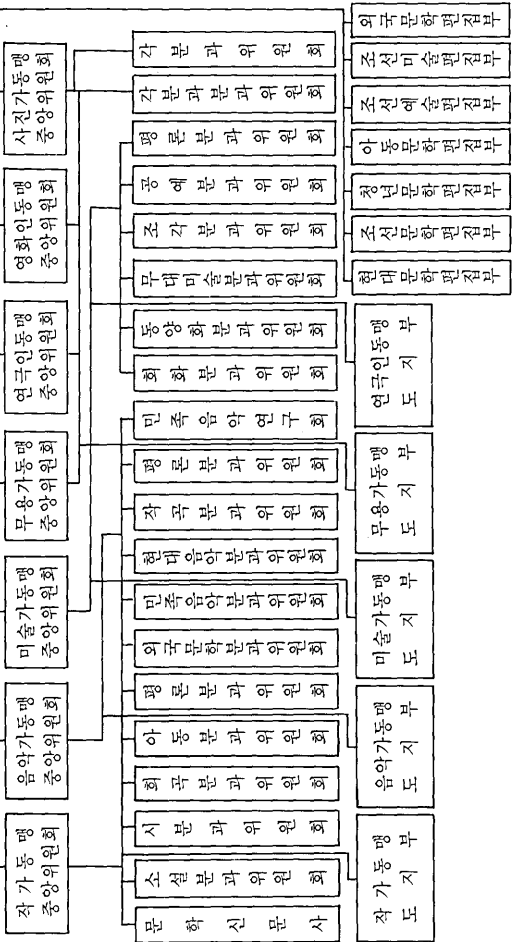
北韓의 藝術家 양성기관으로는 平壤文學大學, 平壤美術大學을 비롯하여 音樂大學, 演劇映畫大學 등 4년제 대학이 있고 平壤舞踊學校, 2·16藝術專門學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문예총출판사

- 조직부
- 신진부
- 교양부



校, 7·18高等藝術專門學校, 造形藝術學校, 平壤教藝學校 등이 있다.

北韓의 藝術·機能人 養成機關中 한가지 특이한 것은 평양교예학교를 들 수 있는데 이 학교는 그들이 자랑하는 바와 같이 전세계에서 오직 하나 밖에 없는 서커스요원 양성기관으로서 1972년도에 설립, 16여년간 150여명이 넘는 서커스요원을 양성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다.

북한이 서커스부문에 이토록 관심을 보인 결과 서커스 공연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평양시에는 2개의 「교예극장」이 있어 상시 공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社會에서 文學·藝術家로서 活動을 하려면 반드시 이들 藝術分野 教育機關을 수료해야하고, 수료한 후에도 반드시 文學·藝術分野 職場에 배치 받아야만 된다는 제한성이 있다.

그 외에 北韓에서 文學·藝術人이 되는 길은 전국 문예작품 현상모집이나 국가미술전람회, 전국음악·무용경연대회 등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면 가능한데, 이 경

우도 職場을 文學·藝術部門 職場으로 배치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藝術家가 되는 길이 이토록 어렵고 특별히 선발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것은 북한사회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고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職業은 當局의 中央集權的 計劃에 따라 배정해주는 것이므로 個人의 소양과 희망은 무시되고 當局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藝術家라고 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당국에 의해 만들어지고, 길들여지는 것이므로 우리의 개념에서 보면 北韓의 藝術人은 한사람의 機能人 또는 한 사람의 熟練工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예술인들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제도적으로 文學·藝術總同盟(文藝總)에 가입되지 않으면 작가,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또 文藝總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유의사에 따라 창작활동을 하

는 것이 아니라 勞動黨 宣傳煽動部에서 지시된 주제를 정한 기간, 정한 분량, 허가받은 스토리에 따라 작품을 형성해야 하므로 예술가, 작가로서의 창작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또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창작된 작품도 政務院 出版總局의 엄격한 검열을 거쳐 출판되어야만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출판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당의 지시, 당의 방침을 벗어난 작품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북한의 작가, 예술가라고 해서 마음속에 체제 반항적이고 소위 부정적 견해를 가진 자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정신적 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며 간혹 자기 나름대로의 작품을 창작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극비에 부쳐야하는 위험부담을 지녀야 한다.

앞으로 祖國이 統一되거나 南北間에 文化藝術人 交流가 본격화 되었을 시 이들 숨겨진 작품, 그야말로 작품다운 작품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해 본다.

특히 北韓에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순수한 예술 작품을 창작하려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制度的으로 불가능 한데 그 이유는 북한의 所有制度, 市場機能 부재 등으로 당국이 지정해준 직장에 나가지 않는 한 生存을 維持할 수 없기 때문이다.

北韓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말라”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직장에 나가야만 食糧配給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食糧配給을 공제하고 있는데다 個人이 經濟活動을 통해 생활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 北韓 藝術人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근원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살펴봐야 할 일은 北韓의 社會主義憲法 제60조에 의하면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고 “저작권, 발명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얼핏 보면 著作權과 版權 등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산으로서의 기능, 소득원으로서의 기능이 없으므로 이것이 생활근거로는 될 수 없

는 것이다.

4. 分野別 文學·藝術 實態

가. 文 藝

北韓의 文藝는 주민들에게 「革命的 樂觀主義」와 「集團主義的 英雄主義」를 심어주고 革命發展의 단계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朝鮮文學概觀(’86년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밝히고 있다.

北韓 文藝作品的 時代的 特徵은 主體文藝理論이 대두한 1976年 이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령형상창조”문제를 해결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수령형상문학」이라 지칭되는 일련의 작품들은 金日成의 위대성을 초인적인 모습으로 묘사한 것들이다.

다음 主體文藝理論 대두 이후인 1970년대 초반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 불리우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장편소설로 개작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대한 北韓側의 說明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 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개조하여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자면 본보기 작품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상 예술성이 완벽하게 구현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본보기로 내세울 수 있도록 소설로 옮긴 것이라 한다. 이들 3대 고전적 명작은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연극으로 공연했던 것이라 하며 1969-1974년사이에 세 작품 모두 長篇小說, 映畫, 革命歌劇 등 文藝의 모든 형태로 改作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北韓 文學은 “3대혁명기수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새로운 인간성격 창조”로 “긍정적 주인공”에 의한 감화라는 「긍정전형」을 창조하였다고 선전한다. 이는 종래의 친일지주·반혁명분자·일제 등 고정적 악역들이 현실성을 상실함에 따라 선악의 이분적 대

립구도로부터 긍정전형을 보다 중시하는 구도로 변화해가는 것을 보여준다.

詩의 경우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수령과 지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불타는 충성의 마음”이 반영된 소위 「頌歌」의 전면적발전을 보여준다고 북한 문학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 대표작으로는 1972년 金日成의 60회 생일에 집체작으로 발표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아버이 수령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60만이 드리는 충성의 노래」(한덕수) 등이 있다.

또한 1970년대 부터는 金正日에 대한 찬양이 등장,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설에서는 「고요」(1984, 리종렬), 「기억」(1985, 석윤기), 「아끼시는 심정」(1982, 리동후)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 부문에서는 「위대한 탄생」(1984, 오영재), 「백두의 새날」(1982, 김철), 「한 평생을 바쳐」(1976, 최영하), 「2월의 꽃바다」(1976, 리영백)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主體文藝理論 대두 후 북한 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의 전개, 긍정전형의 창조, 김정일

우상화의 심화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작품창작의 특징 외에 문화운동의 전개 측면에서는 군중문학의 활발한 움직임이 눈에 뜨인다. 黨創建日, 金日成 및 金正日 생일, 金日成·金正日의 연설 등을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공모되는 군중문학상이 다수 있어 그 입상작을 단행본으로 출간할 뿐만 아니라 입상자들의 문단데뷔에도 특혜를 주는 군중문학운동은 1982년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더욱 활기를 띠어 오고 있다. 군중문학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당창건일과 김일성 생일을 기해 제한없이 공모하는 「전국 군중문학상」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6·4 문학상」을 들 수 있다. 특히 제 1회 「6·4 문학상」수상작인 주옥양의 시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는 김정일 찬양의 극치를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외부의 변화요구를 반영하듯이 男女의 愛情을 묘사한 작품도 등장한다. 思想과 主題는 당과 김부자에 대한 충성임에는 변화가 없으나 줄거리를 남녀의 애정을 중심으로 한 것인데, 그 대표작으로는 남대현의 「청춘송가」(1987)

로서 이는 北韓內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문단에도 높은 평가를 얻었다.

北韓의 文藝部門 組織은 文藝總 산하 作家同盟에 망라되어 있는데 작가동맹 산하단체로서는 ① 소설 분과위원회 ② 시 분과위원회 ③ 희곡 분과위원회 ④ 아동문학 분과위원회 ⑤ 평론 분과위원회 ⑥ 외국 문학 분과위원회가 있고 수필 분과위원회가 없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作家同盟 산하단체중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소설과 시부문인데 다른 부문에 비해 이 부문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人民大衆과의 관계가 보다 밀접하여 金日成家計 偶像化 작업에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최근의 북한 문예작품이 얼마나 金日成·金正日 우상화에 치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움직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87년 9월 26일자 평양방송은 최근에 이르러 金正日을 찬양하는 文藝作品이 3,000여편이나 창작되었는데 이들 작품을 70여 종의 책으로 엮어 300만부

나 출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金正日을 찬양하는 문학작품 중에서 외국인들까지 김정일을 찬양하여 보내왔다는 시를 모아 「동방의 위인 김정일」이라는 제명으로 출판하였고 북한의 시인들이 쓴 시를 모은 시집 「향도의 햇살 우리러」는 전 10권이 나 된다고 한다.

또한 '87년 6월 4일자 로동신문은 각지의 근로자들이 창작한 문예작품수가 지난 6년간 무려 30만 8천5백여편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57편은 영화화 되었고 1만2천6백편은 각종 출판물에 수록되었으며 33편에 대해서는 「6월 4일 문학상」을 수여했다고 하였다.

'88년 7월 15일에는 金日成의 항일투쟁을 주제로 한 전15권의 革命歷史小說 「불멸의 역사」를 창작했다고 크게 선전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위 혁명의 역사소설로 불리우는 「불멸의 역사」는 金正日의 지시에 의거, 「4·15 문학창작단」에서 공동 집필하였는데 작품의 집필방향은 ① 항일투쟁 시기의 현실반영 ② 수령의 품모와 업적을 혁명적으

로 소설화 ③매 작품들은 상호 연관성을 유지하되 주제가 뚜렷한 독립성을 지닌 것 등이다.

또한 北韓의 宣傳媒體들은 「불멸의 역사」는 역사 사실에 대한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풍부한 예술적 형상을 보여준 “수령형상 창작의 본보기”라고 극구 찬양하고 있고,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김일성의 해방이후 업적을 주제로 한 후속 소설을 집필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살아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大河小說을 집필한다는 자체가 세계 문학사상 찾아볼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소설이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北韓의 文學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짐작케 한다.

〈불멸의 역사 전15권 내용〉

권번호	권 명	집필자	집 필 내 용
1	달을 올렸다	김 정	○ 김일성이 「타도 제국주의 동맹」결성후 길림으로 나와 활동 ○ 청년공산주의자의 양성과 김일성의 혁명지도 이념
2	혁명의 여명	천 세 봉	○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

권번호	권명	집필자	집필내용
.			간의 파벌싸움에 대한 김일성의 비판
3	은하수	천세봉	○ 김일성이 조선혁명의 주체적 노선을 선포하는 모습
4	봉우리	석윤기	○ 김일성이 노동자·농민·청년학생들을 규합, 유격대 결성
5	근거지의 봄	이종열	○ 김일성의 인민혁명 정부건설에 대한 독창적 사상
6	압록강	최학수	○ 김일성의 영도예술
7	잊지 못할 겨울	김재한	○ 김일성의 광복회 결성과 투쟁
8	존엄한 친구	김병훈	○ 보천보 전투, 무산지구 전투에서의 김일성의 활동
9	두만강지구	석윤기	○ 감무경비도로를 백주에 행군하는 김일성의 유격전법
10	대지는 푸르다	석윤기	○ 김일성 찬양(내용 불상)
11	1932년		○ //
12	혈로	박유학	○ //
13	백두산 기슭		○ //
14	위대한 사랑		○ //
15	고난의 행군		○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北韓의 文藝作品은 레닌-스탈린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

면서도 金日成의 항일 빨치산시기의 문학서클활동을 시원으로 한다는 이른바 “문학의 혁명전통성”을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 金日成·金正日 神格化 作業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이 金日成을 주제로 한 歷史小說까지 집필하게 된 것은 人民大衆에게 날조된 金日成 鬪爭史를 흥미롭게, 그리고 감동깊게 읽히려는 의도에서 발상된 것이라 보여지는데 우상화 작업도 이 지경에 이르면 동서고금의 그 어느 위정자도 하지못했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찬할 만 하다.

金日成에 대한 우상화 작품 생산에 못지 않게 최근에는 金正日을 우상화하는 작품이 양산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문학 '87년 5월에는 金正日을 찬양하는 시를 특집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2·16은 영광의 날, 축복 받는 날, 축복받으라 주체의 조국이며, 그대의 영광 빛나고, 세계의 자랑 높거니” 등등 구사할 수 있는 미사여구를 모두 망라하고 있고 조선문학 '87년 4월호에는 「언제나 우러르는 영상」이란 시에서 “가장 친근하고 위대한 그이

는 우리의 찬란한 미래, 깨끗한 양심과 의리로, 영원히 받들어 모실, 인민의 지도자, 민족의 숙원도 한몸에 받아 안으시고, 인류의 염원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천리마를 진두에서 헤쳐가시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北韓이 지난해 政權樹立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전국 군중문학 현상모집」과 「3·23방송 문학작품 현상모집」, 「우리 교실문학 현상모집」 등에 나타난 작품들은 한결같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극찬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1988년 3월 1일부터 1989년 2월말일까지 1년간에 걸쳐 현상모집했다는 「3·23 방송 문학작품상 경연대회」의 작품주제에 대해 북한은 ① 김일성의 혁명업적과 영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주제로 할 것 ② 김정일의 위대성을 형상화한 작품 ③ 당의 혁명전통과 사회주의의 건설시기, 대중적 영웅주의와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는 인물을 반영한 작품 ④ 인민들의 애국심을 내용으로 한 작품 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충성심과 노력적 위훈을 떨치고 있는 인물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 ⑥ 남조선의 반

미 자주화 및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그린 작품 등 6개 부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北韓은 최근 靑少年을 대상으로 문예작품 창작활동을 크게 장려하고 있고 이들의 작품활동을 고무하기 위해 「우리 교실 문학상」, 「6·4 문학상」을 제정하고 있다.

'87년 4월 15일 金日成 生日을 기해 제정된 「우리 교실 문학상」은 인민학생들로 부터 고등중학생에 이르기까지를 대상으로하는 賞인데 지난 '87년 4월, 1차 현상모집한 이래 지난해 까지 4만여편의 작품이 응모되었다고 하며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6·4 문학상」은 매년 응모작품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처럼 北韓은 既存의 作家들의 文學作品을 통한 김일성가계 이상화, 당정책 선전, 체제찬양 등을 하는 한편 인민학생으로 부터 근로인민대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중으로 하여금 직접 문학작품을 창작케 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려 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文學은 대부분이 體制 및 金日成과 관계된 작품들이고 우리의 고전문학이나 외국의

명작들은 특별히 선정된 것에 한해 출판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나마도 北韓의 理念과 體制에 맞게 새로 각색한 것이 많아 원전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北韓의 文藝作品중에는 純粹文學에 해당하는 것이 전혀 없을까? 불행히도 수없이 발표되는 문예작품을 볼 때 분단 40년이 넘도록 순수문예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편도 발견할 수 없다.

이 같은 純粹文學의 철저한 배격은 로동당의 문학예술정책에 기인되고 있지만 그 보다는 순수문학작품을 “부르조아 계급에 복무하고 공산혁명에 해를 끼치는 반동문학”으로 규정 과거 순수문학작품을 창작했던 작가를 숙청하거나 이런 작품을 모조리 수거, 폐기처분했기 때문이다.

나. 音樂 및 歌劇

北韓은 音樂을 “대중교양을 위한 훌륭한 수단 하나”로 보고 “생활과 인간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발행한 문학예술사전

(1972,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北韓은 音樂을 思想敎養과 金日成父子에 대한 忠誠을 유발케 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보고 音樂의 大衆化와 日常生活化 하는데 政策的 役점을 두고 있다 하겠다.

北韓 音樂의 창작·표현 기본방침은 ① 민족음악을 위주로 하며 서양음악도 동시에 발전시킬 것 ② 민족적 선율을 바탕으로 현대적 미감에 맞는 선율 창조 ③ 기악음악보다는 성악에 중점 ④ 곡조보다는 가사에 중점을 두는데 있다.

北韓의 音樂은 旋律面에서 소련민요와 중국풍의 음악양식을 따르고 있고 노래는 우리의 국민 가요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간한 노래집의 약 50%는 민요조에 두고 있는데, 곡보다는 가사에 치중하고 있으며 하모니와 리듬보다는 멜로디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음악은 우리와는 달리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음악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음악의 화성은 단조로와 일반대중이 따라 배우기 쉬운 템포로 되어있고 변화가 없어 지루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성악의 창법과 발성은 「비성」중심의 발성을 주로하고 있어 고운 소리이기는 하나 부차연스럽고 많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北韓의 歌謠는 金日成·金正日 찬양의 송가, 당 정책 선전가요, 서정가요, 혁명가요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송가이다.

北韓에는 우리의 대중가요와 같은 음악은 찾아볼 수 없고 영화음악의 주제가 유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의 가사를 부르기 보다는 변조하여 부르고 있다 한다.

北韓에서 흔히 이용되는 악기는 아코디온과 기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피아노나 오르간 등은 대부분의 學校에서도 찾아 보기 힘들며 기타 악기는 교향악단이나 전문 음악인에 한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우리 고유의 民俗樂器를 크게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민족 전통악기를 현대음악에 맞게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관현악과 민속악기를 동시에 합주하는 것이 이례적이다.

북한에서 불리우는 노래의 가사는 대부분이 金日成과 金正日을 讚揚하거나 北韓體制와 共產主義의 優越性, 반미·반한 적개심 고취, 노력선동 등으로 되어 있다.

북한 음악의 부문별 특징을 보면 다음표와 같다.

* 음악 부문별 특징

분 야	특 징
가 창 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선전목적을 지닌 가곡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조선명곡 600곡집에는 김일성 가계찬양곡 232곡 (39%)을 비롯 체제찬양, 혁명성, 노동의욕, 적개심 고취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 전부이며 순수 서정적인 가곡은 없음.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작곡 * 7음을 반음 올리는 것과 곡중 변조를 극히 삼가 * 전반적 우리의 대중가요나 동요 수준임. -김일성 찬양을 위한 독특한 장르 형성 * 김일성 송가에는 가장 고상하고 유순한 발성법으로 김일성 앞에는 “아-”라는 감탄사와 가장 높은 음을 사용하며, 찬양가사는 서정시로 표현 -급격한 크리센토(가창중 소리를 끊어 중단하는 것)를 사용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창법구사
관 현 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몇개의 선율을 중심으로 전개된 단순한 유행가풍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분 야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한 음을 자주구사, 변화가 없음. -후기 낭만식의 3관 편성이고 단순한 리듬 <li style="padding-left: 2em;">* 누구나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사 -현대 작곡기법 무시
국 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약한 국악 기반위에서 출발 <li style="padding-left: 2em;">* 6·25당시 임동실·조상선·임소향 등 월북 창작인을 주축으로 기반 형성 -이론적 바탕없이 출발, 전통성·자율성·예술성 결여 -전통국악, 악기의 변조 -국악의 양악화 경향

다음 北韓 音樂界의 動向中 특징적인 것을 살펴본다.

北韓의 「사로칭」기관지인 「로동청년」 '87년 2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80년도부터 '86년도까지 金日成과 金正日을 찬양하는 가요만도 370곡이 작곡되었고 매년 70여곡이 작곡되고 있다고 했으며 「조선명곡 600곡집」에는 302곡이 가요이고 200곡이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 가극의 아리아이며, 98곡이 영화주제가인데 이중 가요 302곡만도 金日成, 金正日을 찬양하는 것이 80%에 해당하는 240곡이었다.

또한 「조선예술」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87년도에 작곡된 가요중 50%가 혁명전통을 소재로 한 것이고 20%가 노력동원 선동, 15%가 체제찬양, 나머지가 기타 소재를 내용으로 한 것이라 했다.

최근 北韓에서 보급되고 있는 소위 革命傳統을 주제로 한 노래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투쟁을 찬양한 「빛나라 보천보」와 영화 「월미도」의 주제가인 「나는 알았네」라고 하는데 이들 노래는 인민학생들로부터 고등중학생들간에 널리 불리어진다고 한다.

노력선동을 주제로 한 노래로는 「10대 전망의 노래」가 또다시 반복, 소개되고 있고, 체제찬양 노래로서는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이 널리 불리우고 있다.

'88년도에 이르러서는 金正日花를 지정, 이를 찬양하는 「김정일화 노래」를 널리 보급하고 있는데 그 가사의 일부를 보면 “그리워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처럼 …… 아 붉고 붉은 충성의 김정일화”로 이어지고 있다.

北韓은 우리의 傳統民謠에다 金日成父子와 체제를 찬양하는 가사로 변조시켜 보급하고 있는데 실

례를 들면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라는 고유 가사를 “그때에 해야 할 일, 미루지 말고 해치우고”, “수령님 은덕으로 대풍이 들었네”로 변조했는데 이러한 가사 변조는 30여개로 “세월아 가지마라”, “항금산의 백도라지” 등 곡명까지 변조한 것도 있다.

北韓은 音樂이 住民들을 선동하는 수단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音樂에 政治性과 思想性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 北韓의 歌劇(Opera)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北韓當局은 歌劇을 전체인민이 즐기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가극 창작의 기본으로 인민음악+무용+무대미술의 종합예술로 완성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北韓의 가극이 “인민적이고 민족적이며 통속적이고 혁명적 가극으로 발전되어 새로운 혁명가극 시대로 열었다”고 자찬하고 있다.

北韓에서 말하는 革命歌劇은 「피바다」를 시초로 창작되기 시작했는데 북한에서 5大革命歌劇이라 불

리우는 것은 「피바다」를 비롯하여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 하라」, 「금강산의 처녀」이고 이중 「꽃파는 처녀」는 '90년 4월을 기해 1,500회 공연을 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北韓이 宣傳하는 代表的인 革命歌劇인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피바다」는 1930년대 일제의 탄압속에서 「을남」일가가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피압박 민족과 피착취계급이 자신의 해방을 위해 수령의 영도 밑에 무장을 들고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진리를 구현한 작품”이라 한다.

북한이 이 작품을 대표적 혁명가극으로 보는 이유는 “김일성이 밝혀준 항일무장 투쟁노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고 있고 수령께 끊임없는 충직한 혁명전사, 공산주의자로 자라나는 주인공의 전형적 형상을 통해 억압이 있는 곳에 반항이 있고 피착취 근로대중에게는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밝혀주기 때문”(문학예술사전)이라고 하고 있다.

「꽃파는 처녀」는 1920년대말을 시대적 배경으로 地主에게 당하는 「꽃분이」일가를 통해 階級社會의 矛盾과 階級鬭爭의 必然性을 강조한 작품이다.

이 가극 역시 「피바다」와 비슷하나 차이점은 “착취사회의 반동적 본질과 그 사회가 빚어낸 온갖 죄악을 속속들이 들추어 내고 폭로 규탄한데 있다”고 문학예술사전에서 밝히고 있다.

北韓에서는 革命歌劇을 계속해서 公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국의 주요인물을 초청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5대혁명 가극 중 한두개를 관람토록 하고 있다.

북한식 오페라의 특징은 대화창보다는 제창, 합창을 반복사용하고 있고 제창을 대화창의 대치로 이용하며, 군무를 크게 활용하고 무대장치의 대형화, 무대전환, 스크린프로세스를 리얼하게 살리는 것 등이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북한식 오페라는 대스케일의 매머드 오페라이며 그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1〉

피 바 다

1. 創作年度

○1936. 8 김일성이 무송현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만강부락에서 연극 「피바다」의 각본을 직접 창작했다고 선전

○1971년 「피바다 가극단」에서 처음으로 공연

* 1969년 조선영화예술촬영소에서 영화로 제작

2. 歌劇構成 및 特徵

○7장 4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시간은 180분임.

○유물변증법적 창작의 대표적 작품으로서 선전선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무를 대폭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가사의 전달을 위해 서가식의 대화창이 아닌 발성법(절가)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무용형식은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율동미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힘과 규모의 조직을 과시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의 강인한 힘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작품의 예술적, 내용외적인 효과의 증대를 위해 가극 규모를 대형화 했고, 조명·무대장치 등은 소련의 기술을 직수입하여 상당한 수준에 있음.

3. 內容要旨

○작품 배경시기는 1930년대로서 일제의 탄압과 그 과정속에서 겪는 「을남」일가를 통해 일본인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음.

○가극의 줄거리는 「을남이」의 아버지 「윤섭」을 비롯해 마을 농민들이 일제관리와 지주를 대상으로 투쟁하다 마을이 불타고 「윤섭」, 「을남」등 많은 사람이 죽자 「을남이」어머니는 어

린아이들을 데리고 살길을 찾아 해매던 중 김일성이 조직·영도하는 항일무장 투쟁만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고 깨닫고 둘째아들 「원남이」를 유격대에 보내고 자신은 부녀회를 조직, 항일혁명 투쟁에 앞장 선다는 내용임.

○이 가극은 “피압박 민족과 피착취계급이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는 오직 수령의 영도밑에 손에 무장을 들고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혁명적 무력으로 반혁명적 무력을 격파해야 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고 주장(북한 발행 「문학예술사전」p. 895)하고 있는 것처럼 김일성 우상화와 계급투쟁의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음.

○가극의 내용전반이 「을남이」어머니를 내세워 반제혁명 역량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 보장⇨혁명핵심(혁명의 주력군) 육성⇨광범한 대중을 조직적으로 결속⇨무장투쟁의 대중적 지지기반 확대 등이 이루어질 때 무장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공산주의적 혁명이론이 기초를 이루고 있음.

○이 가극의 주제가인 「피바다」는 “혁명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전세계적 범위에서 무산정권이 수립할 휘황한 새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음.

※ 參考 : 「피바다」가극에 대한 북한의 주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혀주신 항일무장 투쟁 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고 있으며 이 로선을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수령님께 끊임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공산주의자로 자라나는 어머니, 원남이, 갑순이 등 주인공들이 전형적인 형상을 통하여 압박이 있는 곳에 반항이 있으며 피착취 근로대중에게는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북한 발행 「문학예술사전」p. 899)

- “혁명가극 「피바다」는 오늘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참된 교과서가 되고 있으며 혁명적 가극예술의 불멸의 가치
로 고전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다.”

(북한 발행 「문학예술사전」P. 901)

〈참고 #2〉

꽃파는 처녀

1. 創作年度

- 1930년 오가자에서 김일성의 지도밑에서 창작되었다고 주장
○1972년 「피바다 가극단」에서 처음으로 공연

2. 歌劇構成

- 서경, 7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시간은 160분임
○「피바다」식 가극창조원칙에 의거하여 창작된 작품

3. 內容要旨

- 동 가극은 1920년대말-30년대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
으며 「피바다」에서 처럼 지주에게 당하는 「꽃분이」일가를 통
해 계급사회 矛盾과 계급투쟁의 필연성을 강조한 작품임.
○가극의 줄거리는 좁쌀 두말을 빚진것 때문에 「꽃분이」일가가
대를 이어 머슴살이를 하며 부모와 장남인 동생의 죽음 등
온갖 불행과 시련을 겪는 꽃분이가 조선혁명군인 오빠 「철용
이」를 만난뒤 계급적 원수에 대한 증오감으로 일제와 지주에
대항해 싸운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이 가극은 주제전달에 있어 「피바다」와 대동소이하나 북한이
이 가극을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민들의 반항이 있

으며 오직 투쟁의 길, 혁명의 길만이 참된 삶의 길이라는 계급투쟁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주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등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간의 갈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음이 특징적임.

※ 參考：「꽃파는 처녀」에 대한 북한의 주장

○“「꽃파는 처녀」는 착취사회의 반동적 본질을 그 사회가 빚어낸 온갖 죄악을 속속들이 들추어내고 폭로 규탄한 준엄한 론고장이며 인민들에게 혁명투쟁의 진리를 깨우쳐 주는 참다운 생활의 교과서로서 사람들을 계급적 원수들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성스러운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불러 일으킨다.”

(북한 발행 「문학예술사전」P. 1, 018)

다. 舞 踊

北韓의 舞踊은 다른 藝術分野에 비해 가장 活動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舞踊이 하나의 獨自的인 분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은 가극의 한 부문으로서만 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北韓에서의 舞踊은 음악, 재담(코메디)과 곁들여 종합공연 할 때 하나의 작은 부문으로서 참가하는 정도이므로 兒童舞踊이 주를 이루고 있다.

北韓의 舞踊은 우리의 古典舞踊 형태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발레가 존재하기는 하나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北韓의 무용형식은 육체의 아름다움, 율동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규모, 조직을 과시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舞踊手가 사용하는 보조기구는 군인들의 총기류, 노동자의 생산도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舞踊은 戰鬥的이고 煽動的인 율동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우아하고 섬세한 무용고유의 기법은 경시하는 경향이다.

최근 北韓은 전래의 民俗舞踊을 발굴하여 발전시키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함남 북청지방의 민속무용인 「돈돌라리」를 발굴했다는 것이다.

북청지방의 대표적 民俗舞踊으로 알려진 「돈돌라리」는 한식날 여성들이 달래를 캐며 즐긴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달래 터 놀이」, 「달래데이」, 「달래춤」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고 이 춤의 특징으로서는 윤무형식에다 패기있는 춤가락과 「좋지, 좋지」

하는 후렴이 있는 것이다.

'87년초 北韓의 新聞放送은 舞踊의 科學的 表記手段과 방법을 창출한 새로운 「무용표기법」을 개발했다고 크게 보도한 바 있다.

당시 北韓의 宣傳媒體들은 이 새로운 무용표기법이 '72년 1월에 발의되어 15년동안 북한에 이름있는 안무가, 공훈배우들로 연구집단을 구성했고 김정일의 세심한 지도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무용표기법이란 한글의 「자모음 결합식」방법에 의해 표기토록 했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몸동작을 4가지 형태와 11가지의 놀림(동작)으로 구분하여 이를 「모음적 기능」으로 했고, 12개의 자리부호, 7개의 방향부호를 「자음적 기능」으로 한 후 이들 기본부호를 임의의 형태로 결합하면 사람의 어떠한 움직임도 원만히 표기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獨舞 뿐 아니라 群舞에 이르기까지 舞踊手들의 相關關係와 무용구도, 소도구 이용법, 무용의 시간적 길이, 무용의 형상적 제요소

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할 수 있다고 하여 획기적 표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舞踊家 조직은 「조선무용가 동맹」산하에 민족무용·현대무용·평론분과위가 있고 각 도에 지부가 조직되어 있다.

라. 美 術

北韓은 美術을 “조형적 언어를 가지고 현실을 사상미학적으로 파악하며 시각적 구체성, 직관성, 명료성을 특징으로 하는 조형적 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의 사상정서 교양에 이바지”한다고 문학예술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美術의 分野를 社會的 機能에 따라 기념비미술, 영화미술, 무대미술, 장식미술, 산업미술, 건축미술, 일반미술로 나누고 있다. 그 외에 材料와 技法에 따라서는 회화·조각·공예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北韓은 美術을 “로동과정에서 생겨나서 人間生活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고 하면서도 “지난날의 미술유산에는 착취계급의 사상과 취미를

반영하고 그들에게 이용된 것”이 많으며 日帝 植民地 統治에 의해 왜곡되어 “민족적 및 계급적 대립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다.

北韓은 참된 美術의 傳統을 抗日革命美術에서 찾는데, 金日成이 이끈 抗日革命美術이 최초로 “당성·로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미술”이었다고 평가한다.

北韓은 “미술은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 美術로 되어야 한다는 金日成 敎示에 따라, 1-2개씩 있는 미술창작사에서 담당하는데, 가장 유명하고 해외에도 수출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곳은 평양 「만수대창작사」이다.

北韓은 藝術部門中에서도 美術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당국이 미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림(회화)이 지니는 특성이 직관물이기 때문에 정치해설과 사상교양 사업을 벌이는데 매우 효

과적인 부문이고 金日成銅像, 革命構造物을 구축하는데 彫刻分野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北韓의 발표에 의하면 金日成의 美術에 대한 관심은 해방 당시부터 깊이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즉 金日成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6월 당시 北韓內의 美術家들을 불러 民族美術形式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며, 휴전직 후인 1953년 12월에는 당시 소문난 그림으로 알려진 「금강산」을 보면서 채색이 좋지 않다느니 미적 형상화가 잘못되었다느니 하는 등 전문가적 비평을 하면서 “그림을 선명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기법 연구와 현실적 요구에 맞게 그리도록 해야한다”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또한 1954년도에는 平壤美術大學을 4차례나 방문, 학생들에게 지도까지 했다고 하는 등 김일성이 미술의 대가인양 선전하고 있다.

오늘날 北韓에서 創作되는 모든 美術作品은 모두가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것이라 하는데 미술에 대한 김일성의 종합적 지시는 1966년 10월 우리의 국전에 해당되는 제 9차 국가미술 전람회에서 내렸다

는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 미술로 발전시키자”라는 이름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미술에 대한 金日成의 基本方針은 모두 12가지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술을 民族的 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은 革命的인 美術로 발전시킬 것.

② 革命의 길과 인민의 英雄的 투쟁모습을 형상화 할 것.

③ 搾取社會의 本質을 실감있게 보여주어 階級敎養에 이바지 할 것.

④ 사회주의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을 알게 할 것.

⑤ 朝鮮畫를 토대로 美術을 발전시키되 그렇다고 해서 다른나라의 미술형식을 다 반대하여 조선화만 그리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유화나 판화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⑥ 美術分野에서도 主體를 세울 것.

⑦ 朝鮮化를 바탕으로 하되 복고주의적 옛날 것

을 본뜨라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간결한 전통적 화법을 연구하여 時代的 要求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⑧ 미술작품의 주제를 옳게 선정해야 하는데 좋은 주제란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할 수 있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힘차게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림”을 말한다.

⑨ 회화뿐 아니라 영화미술, 무대미술, 산업미술, 조각, 수예, 공예와 같은 미술도 다 조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社會主義 건설자들의 정서와 지향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⑩ 資本主義社會의 미술은 主觀主義와 形式主義, 自然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어 人民大衆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고 인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⑪ 美術家들이 당이 요구하는 작품,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미술작품을 창작하려면 현실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工場과 農村에 직접 나가서 勞動者, 農民들과 일을 같이 해야 한다.

⑫ 美術創作事業을 대중화하여 재능있는 미술가의 후비대를 많이 키워야 한다.

北韓의 美術活動은 이상의 기본방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革命的 美術이 되어야 하고 당과 수령의 위업을 형상화 해야하는 것이며 미술의 중점분야는 조선화와 조각에 두고 작품소재는 노동자의 작업광경, 항일혁명운동, 김일성 우상화, 제국주의 반대,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둔다는 것이다.

北韓에서는 個人的 美術創作熱을 북돋우고 미술 작품창작을 통해 정치사상성을 제고시킨다는 명분하에 매년 國家美術展覽會를 개최하고 산업미술 전람회, 출판화 전시회, 선전화 전람회 등을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는데 기성화가들은 자기의 재능을 보다 높이 인정받으려고, 일반주민들은 화가로의 등용 기회를 얻기 위해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다.

北韓의 美術家 역시 他藝術分野 從事者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와 아이디어에 따라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當局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업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말해 그 작품은 자기 개인의 작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個人展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자기작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활용도 금지되는 것인데 지난해에 처음으로 어느 화가와 조각가에게 개인전을 허용했다고 선전한 바 있다.

최근 北韓은 美術家들의 個人主義的 性向을 방지하고 당의 방침을 보다 깊게 반영시킨다는 명분하에 집체적 창작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연유에서 小品보다는 大作中心의 창작을 강요하고 있다 한다.

'87년 2월 17일 조선중앙방송보도에 의하면 金正日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년간 北韓 각지에서는 240여개의 大型壁畫가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들 벽화의 평균 크기는 100m²이고 가장 큰 벽화는 무려 800m²나 되며, 이중 대표적인 벽화로서는 평양시 「개선혁명 사적지」에 설치한 높이 10.14m나 되는 「민족의 환호」, 「만경대 아침」, 「삼지연의 봄」등이라 한다.

1986년도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화 형상이론」이라는 책자에 수록된 조선화가 지니는 화법상의 특징

은 선명성, 간결성, 섬세성에 있다고 했고, 기법으로서는 선묘기법, 피움기법, 몰골기법, 세화기법이 있다고 했으며 조선화 창작의 원칙적 요구로서는 ① 종자를 똑바로 쥐는 것 ② 소묘, 습작, 속사를 많이 할 것 ③ 초보단계와 원화와의 관계를 옳게 이해할 것 ④ 예술성보다는 정치성에 우선을 둔다는 전형화의 원칙준수와 기록주의적 경향을 극복할 것 등이라 하고 있다.

또한 北韓에서 教師들의 教育指針書로 발간 배포한 「도화·공작 교수법」이라는 책자에 보면 아동들에게 도화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 일차적으로는 도화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자는 데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물과 형상을 바로 관찰, 묘사하며 감상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고 아름다운 자연, 고유한 문화유산, 천리마의 기세로 내닫는 社會主義 祖國에 대한 불타는 사상을 지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는 등 純粹美術에 대한 理解와 더불어 思想教育에 목적을 두고 있다.

北韓의 美術家들은 朝鮮美術家同盟에 가입해야 하는데 미술가동맹에는 회화, 조선화, 무대미술,

조각, 공예, 평론 등 6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각도
급에 지부가 조직되어 있다.

北韓의 美術家同盟에는 書藝部門이 빠져 있는데
북한이라고 해서 서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예에
대한 인식결여, 정치선전 면에서의 이용가치가
적다는 점에서 그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분과위원회도 결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된다.

마. 映畫 및 演劇

北韓의 映畫를 「직관미술」이라 하여 어떤 예술장
르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원래 北韓映畫는 肯定典型과 否定典型의 대립에
서 肯定典型이 승리하는 구도로서, 악역은 미군·
일제·반당분자·지주·자본가 등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否定典型이 시대적 공감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金正日의 지시아래 “긍정전형을 통한 감
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후 절대적
악역은 없어지고 제한적 오류를 범한 사람이 긍정
적 주인공의 감화로 오류를 시정하는 것으로 변화

되었다.

1960년대 천리마 운동 이후 대형화, 20편까지 이어지는 대작 시리즈화 등 방대한 작품제작에 치우쳤으나, 대작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海外映畫祭에서 외면받자 1984년 이후 스케일은 줄이고 敘情性·寫實性을 강화하는 변화를 보인다. 신 필름의 「소금」이 모스크바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1987년, 北韓은 非同盟國家들을 대상으로 「발전도상국 나라들의 평양 국제영화제」를 개최기로 결정, 그해에 개최된 제 1 회 영화제에서 北韓映畫 「도라지꽃」으로 作品賞과 女優主演賞을 석권했다.

최근에 이르러 北韓은 映畫를 예술분야의 한 장르로 보는 것이 아니라 金日成父子의 偶像化와 世襲體制의 正當化·主體思想注入, 革命思想 鼓吹 등을 위한 선전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北韓은 政策的으로 이 부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金正日의 映畫에 대한 관심은 거의 맹목적인 바,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영화에 관한 김정일의 지식은 매우 높은 것

으로 보여진다.

실례를 들면 '87년 2월 24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창설 40주년 기념집회에서 한 黨측하문에 의하면 北韓에서 製作된 映畵는 “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영화창작이론을 철저히 구현, 인민들을 사상, 문화적으로 교양하고 투쟁과 혁신으로 고무, 추동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하고 있고 영화촬영소 총장인 백민은 보고를 통해 “김일성이 영화창작과 촬영소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일일이 보살피 주었고” 영화예술은 “주체가 선 혁명적 영화예술로 발전시킬 데”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金正日是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켜 영화예술부문에서 부터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나가도록 지시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논조를 볼 때 北韓의 映畵는 金日成의 방침과 金正日의 지도에 따라 혁명적 내용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에 제작되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이것은 엄연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北韓에서 製作되는 映畵는 예술영화, 기록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 등 4개 부문인데, 이중 藝術映

畫는 우리 개념의 劇映畫이나 주제는 대부분이 金日成父子 讚揚 내용이다.

'87년도 北韓에서 製作된 映畫는 총 50편인데 이 중 35편이 극영화이고 13편이 기록영화이며 극영화 35편 중에는 김일성 부자를 주제로 한 것이 10편이고 對美·對韓 적개심 鼓吹物이 7편, 體制宣傳과 愛國心 鼓吹物이 7편 나머지는 經濟煽動, 階級鬭爭, 기타 등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최근 北韓의 宣傳媒體들은 영화에 대한 金正日의 관심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은 金正日이 「조선영화촬영소」에 대한 실무지도를 지금까지 무려 320회나 했고 제작과 관련된 기술지도 횟수는 2,200여회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같은 公式發表가 아니더라도 北韓에서 製作되는 映畫는 모두가 시나리오로 부터 배역선정, 감독, 기타 제작과정, 심지어는 영화보급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金正日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金正日이 주도하여 만든 영화에 자기 자신을 주제로 하고 자신을 찬양하는 영화가 판을 치고 있다

는 것은 북한이라는 사회의 특수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金正日의 行跡을 찬양한 映畫 「누리에 빛나는 향도의 햇발」, 「만대에 길이 빛나리」등은 金正日의 45회 생일에 즈음하여 製作, 北韓全域에 일제히 上映하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의 송가」, 「보증」등은 金正日이 직접 만든 영화라고 소개하고 있다.

北韓과 蘇聯間의 친선관계가 매우 밀접했던 '80년대 중반에는 蘇聯과 映畫製作을 합작으로 하고 있는데 '85년 1월 소련의 최대 촬영소인 「모스필름」과 북한이 최초로 합작영화인 「영원한 전우 1.2부」를 완성시켰고, '87년 12월에는 두번째 합작영화인 「봄부터 가을까지」를 제작했다고 한다.

이 映畫는 '45년 解放當時를 時代的背景으로, 소련군 간호원 「마리아 주까노프」를 주인공으로 한 조·소 혁명관계를 테마로 한 것인데 1년 동안 모스크바, 시베리아, 프리모아 등지에서 촬영을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北韓에서 상영된 映畫중에는 신상옥, 최은희씨가 北韓에서 製作한 「소금」, 「사랑 사랑

내사랑」, 「해아의 밀사」등 7편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정치성, 사상성이 적고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풍기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주요 映畫社로는 극영화 전문의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2·8 예술영화 촬영소」, 기록영화 제작사인 「조선기록영화 촬영소」, 아동과학 교육영화제작의 「조선과학교육영화 촬영소」 등이 있다. 각 촬영소 내에는 2-3개의 제작진이 「창작단」이란 이름으로 있으며 거의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북한에서는 演劇이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歌劇 때문으로 북한의 연극인들은 연극보다는 가극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의 演劇은 舞踊, 노래 등을 곁들인 일종의 오페레타 성향을 띠고 있으며 북한측 발표에 의하면 연극이 대작 위주로 창작되고 있는데 「성황당」, 「혈분 만국회의」,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일당」 등이 대표작이라 한다.

이들 演劇들은 모두가 金日成의 항일빨치산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른바 「혁명연극」으로서 김정일의

지도에 따라 새롭게 각색된 것이라 한다.

北韓의 演劇 가운데 1978년도에 첫 공연을 가졌던 「성황당」은 현재까지 무려 1,500여회에 걸쳐 공연, 120만명이 관람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北韓의 演劇은 映畵의 등장으로 한때 쇠퇴하였지만 여전히 革命敎養의 강력한 도구이다.

북한 연극은 항일혁명시기에 김일성이 오가자·무송 등지에서 공연했다는 「피바다」(血海),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등 항일혁명연극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대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1969-1974년사이에 대규모 혁명가극으로 각색되어 공연되기 시작한 후 더 이상 연극으로는 공연되지 않는다. 그 대신 1978년 6월 14일 金正日이 연극 「성황당」을 대규모 무대에다 음악·무용 등을 가미, 새롭게 창작하도록 지시한 이후 새롭게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발전을 보게된다.

“김정일 지도하에 찬란히 개화발전하여 주체예술의 새 전성기”를 열게한 「성황당식 혁명연극」은 5대 혁명연극으로 「성황당」, 「3인 일당」, 「경축대

회], 「혈분 만국회의」, 「딸에게서 온 편지」를 자랑한다.

이들 새롭게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꾸며진 연극들은 기존의 연극내용 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와 음악·무용을 가미함과 동시에 “원작에 밝혀진 주제와 사상을 철저히 살리고 그것을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폭넓게 심화”시켰다고 선전한다.

5대 혁명연극 외에 1980년대에는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새롭게 창조된 「초석」, 「조국의 품을 찾아서」, 「이 길을 간다」, 「어머니와 아들」 등이 창작되어 크게 공연되고 있다.

〈참고자료〉

1. 주요 공연단체 및 시설현황

가. 공연단체

(1) 연극단

(중 앙)

단	체	명	인	원				
국	립	연	극	단	180명			
평	양	연	극	단	120명			
평	양	청	년	연	극	단	80명	
중	앙	방	송	연	극	단	60명	
인	민	군	연	극	단	80명		
사	회	안	전	부	연	극	단	80명
철	도	부	연	극	단	80명		

(지 방)

단	체	명	인	원			
평	성	시	연	극	단	60명	
신	의	주	시	연	극	단	60명
사	리	원	시	연	극	단	60명
해	주	시	연	극	단	60명	
개	성	시	연	극	단	60명	
원	산	시	연	극	단	60명	

단 체 명	인 원
함 흥 시 연 극 단	80명(직할시)
청 진 시 연 극 단	80명(직할시)
강 계 시 연 극 단	60명
해 산 시 연 극 단	60명
인 민 군 각 군 단 연 극 단	30~40명

(2) 가극·가무·예술단
(중 앙)

단 체 명	내 역 및 인 원
피 바 다 가 극 단	1971년 7월 17일 창립, 인원 380명, 단장 김원균
만 수 대 예 술 단	1946년 평양가극단으로 창립, 1969년 9월 27일 만수대예술단으로 개칭, 인원 약 300명, 총장 김관호
평 양 예 술 단	1972년 모란봉예술단을 평양예술단으로 개칭, 인원 약 300명
평 양 청 년 가 극 단	인원 약 200명
국 립 가 무 단	인원 약 200명
국 립 가 극 단	인원 약 200명
철 도 부 예 술 단	인원 약 150명
인 민 군 협 주 단	1947년 창립, 인원 약 180명
사 회 안 전 부 예 술 단	인원 약 150명
국 립 교 향 악 단	인원 약 180명
국 립 예 술 영 화 예 술 단	인원 약 160명
방 송 예 술 단	인원 약 160명
평 양 학 생 소 년 예 술 단	인원 약 300명

(지 방)

단 체 명	인 원
평 안 북 도 가 무 단	80~90명
평 안 남 도 가 무 단	80~90명
황 해 북 도 가 무 단	80~90명
황 해 남 도 가 무 단	80~90명
강 원 도 가 무 단	80~90명
함 경 남 도 가 무 단	80~90명
함 경 북 도 가 무 단	80~90명
자 강 도 가 무 단	80~90명
양 강 도 가 무 단	80~90명
개 성 시 가 무 단	80~90명
해 군 협 주 단	80명
공 군 협 주 단	80명

나. 주요 공연시설(남북한 대비)

(1988년 기준)

北 韓	韓 國
○평양대극장 -敷地: 7萬5千m ² 건축면적: 3萬m ² -관람석: 2,300席	○世宗文化會館 -敷地: 1萬8千5百m ² 건축면적: 5萬m ² -관람석: 3,941席
○平壤巧藝劇場 -敷地: 5萬m ² 건축면적: 1萬4千m ²	○국립극장 -敷地: 5萬7千m ² 건축면적: 3萬2千m ²

<p>-관람석 : 1,800席 (直徑 67m, 높이 27m의 서커스 公演場)</p> <p>○모란봉극장 -관람석 : 1,000席</p> <p>○氷上館 건축면적 : 2萬5千m² -관람석 : 6,000席 -形態 : 圓錐形</p> <p>○平壤學生 少年宮殿 -1,300餘 관람석의 극장 施設 具備</p>	<p>-관람석 : 1,890席</p> <p>○잠실체육관 -建坪 : 2萬6千m² -관람석 : 12,750席</p> <p>○장충체육관 -垆地 : 3千3百m² -관람석 : 7,700席</p>
---	---

2. 기관·단체별 인물현황

(1989.2.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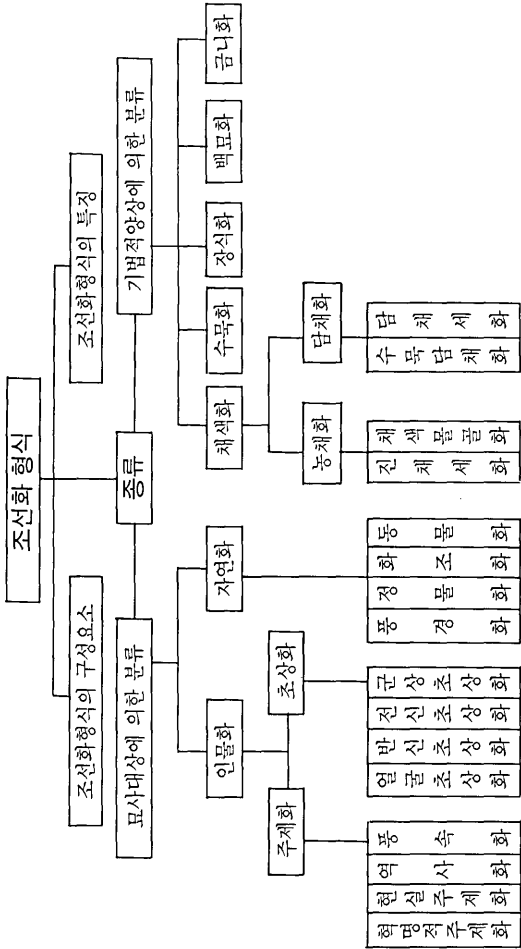
기관 또는 단체		직 위	성 명	비 고
로동당	선전선동부	○제 1 부부장 ○부부장	金基南 김택성	
	문화예술부	○부부장	리상태	
정무원	문화예술부	○부장 ○부부장 ○영화총국장	張 澈 김정호 등 6명 권혁봉	
기관	인민대학습당	○총장 ○부총장	전주남 리영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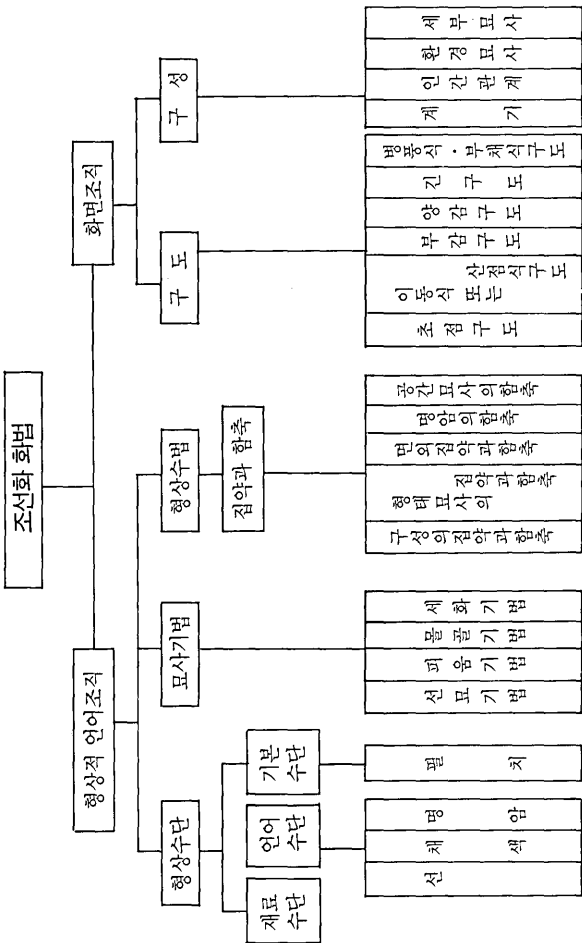
기관 또는 단체		직 위	성 명	비 고
	평양학생 소년궁전	○총장 ○부총장 ○연출부장	김시범 류용택 등 2명 전학민	
	중앙도서관	○관장 ○사서장	함진숙 허정숙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총장 ○부총장	백 민 김찬규 등 3명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총장 ○제 1 부총장 ○해설원 ○처장	이경삼 리명재 박학영 리태환 송익수	직책불명 〃
	2·8예술영화촬영소	○총장 ○부총장	장춘섭 추석봉 등 3명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총장 ○실장	이하규 송덕암	직책불명
	대중과학영화창작단	○단장	리성환	
공연단	평양예술단	○단장 ○부단장 ○총무	김정수 송수원 곽수동	1972창설 단원 : 300여명
	평양만수대예술단	○단장 ○부단장 ○연출가	정춘환 김진영 김영희	1942창설 단원 : 300여명
	평양소년예술단	○단장	김시범	

기관 또는 단체	직 위	성 명	비 고
평양학생소년예술단	○부단장	송완수	창설연대 미상 단원 : 300여명 학생소년공전 (6,000석 규모)
평양국립교향악단	○단장	김정수	1964년 창설 단원 : 160여명
평양모란봉예술단	○단장	박진후	모란봉극장 (1,000석)
평양교예단	○단장	홍재식	1946년 창설 단원 : 180여명 평양교예극장 (1,800석)
백두산창작단	○단장 ○부단장 ○연출가 ○촬영가	백인준 엄길선 엄길선 정의환	
피바다가극단	○총장 ○부총장	석윤기 현승걸	1971년 창설 단원 : 300여명
4·15문학창작단	○단장 ○부단장	석윤기 현승걸	
국립연극단 철도예술단 문화예술극장	○연출가 ○단장 ○부지배인	김동봉 박병섭 원종식	

기관 또는 단체		직 위	성 명	비 고
	극장관리위원회	○부위원장	申應浩	평양대극장 (2,300석)
	조선영화수출입사	○사장	최학래	
	영화과학연구소	○소장	천두익	
단체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산하단체)	○중앙위원회위원장	백인준	
		○제 1 부위원장	최영화	
		○지도원	박수일	
	조선작가동맹	○위원장 ○서기장	석윤기 리인직	
	조선음악가동맹	○위원장 ○평론분과위원장	李晁相 김득청	
	조선민족음악위원회	○회장 ○서기장	金元均 강영희	
	조선공연협회	○회장	張 澈	
	조선미술가동맹	○위원장	정관철	
	조선연극인동맹	○위원장	李 丹	
	조선무용인동맹	○위원장 ○사무장	김재홍 리경룡	
	조선영화인동맹	○위원장 ○서기장	리종순 리봉수	
조선사진가동맹	○위원장	高龍鎭		

3. 조선화 畵論





4.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목차

(1975. 社會科學出版社)

차 례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문예 이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문예이론” (1)
- 제 I 편 주체적인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특징 …… (20)
- 제 1 장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서의 당의 유일사상 체계의 확립 …… (20)
- 제 1 절 문학예술에서의 당의 유일사상의 구현 …… (21)
- 제 2 절 혁명적문예전통의 계승발전 …… (30)
- 제 3 절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 …… (40)
- 제 2 장 공산주의적 인간학 …… (51)
- 제 1 절 주체적인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은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학 …… (52)

제 2 절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창조는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기본요구	(58)
제 3 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	(71)
제 1 절	당성.....	(72)
제 2 절	로동계급성	(78)
제 3 절	인민성.....	(87)
제 4 절	온갖 반동적 문예조류 및 반혁명적 문예사 상과의 비타협성	(95)
제 4 장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	(103)
제 1 절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 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본질적 요구(104)	
제 2 절	사회주의적 내용	(110)
제 3 절	민족적 형식	(119)
제 5 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사상성과 예술성	(129)
제 1 절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의 결합	(129)

제 2 절	사상성.....	(137)
제 3 절	예술성.....	(146)
제 6 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154)
제 1 절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의 종류와 형태 발전의 합법칙성	(154)
제 2 절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의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리용과 발전.....	(161)
제Ⅱ편	주체적인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창조	(172)
제 7 장	문학예술작품의 종자.....	(172)
제 1 절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기본핵	(173)
제 2 절	종자의 파악과 예술적 가공.....	(179)
제 8 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의 전형성	(189)
제 1 절	전형화.....	(189)
제 2 절	전형적 성격의 창조.....	(198)
제 3 절	전형화와 갈등	(208)
제 9 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 창작에서의 속도전	(221)
제 1 절	속도전은 창작의 높은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 주체적인 창작원칙	(221)

제 2 절	속도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의 혁명적인 창작원칙	(232)
제Ⅲ편	주체적인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창조자	(239)
제10장	혁명적 작가, 예술인	(239)
제 1 절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240)
제 2 절	작가, 예술인들의 현실침투와 생활체험	(249)
제 3 절	작가, 예술인들의 예술적 기량제고...	(257)
제11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창조자로서의 인민대 중.....	(265)
제 1 절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은 문학예술의 향 유자이며 창조자	(265)
제 2 절	인민대중에 의한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발전.....	(271)

北韓의 文學・藝術 (통일총서/9)

1991年 1月 5日 印刷

1991年 1月 10日 發行

發行處：統一研修院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 2 동 산73-13

電話：901-7120~4

(통연 91-1-8)

